티베트 대장경 논장, 첫 영어 완역본 출판

'8만4천 불전번역'2009년 작업돌입
16만1800페이지 완역은 사상 처음
100년 장기 프로젝트…25% 번역
"불자들 불교이해에 큰 도움 줄 것"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대장경이 새겨진 목판을 확인하는 84000 불전번역의 연구원.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티베트 대장경을 번역, 보존 및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인 '84000 불전번역' 은 최근 티베트 대장경 가운데 논장의 첫 번째 텍스트를 영어로 완역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1일 국제 불교뉴스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은 84000 불전번역의 공식발표와 함께 성과과정에 대해 보도했다.

티베트 대장경은 경율론 삼장을 둘로 나누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장과 율장을 '깐규르(佛說部)', 논장을 '땐규르(論疏部)' 라고 칭한다. 이중 84000측이 번역작업에 들어간 논장인 땐규르는 총 16만 1800페이지에 달하며 그 동안 부분적인 번역들이 진행됐을 뿐 이번과 같이 체계적인 완역작업에 돌입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84000측은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을 통해 전한 발표에서 "우리가 이번에 완역한 땐규르는 〈성스러운 반야바라밀다: 10만송 · 2만5천송 · 1만8천송의 광대한 주석〉이다. 땐규르의 첫 번째 번역판의 출판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번역물은 우리 번역팀의 많은 구성원들이 헌신한 작업의 정수이자, 이 조직에 중요한 이정표다. 더 많은 이들의 정신적인 이익을 위해 티베트 대장경을 영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비전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이번 주석서의 번역은 캐나다의 불교학자인 개러스 스페험 박사와 인도 대뿡사원의 방장인 게셰 롭상걜첸 스님, 다람살라 불교 변증법 연구소장인 게셰 깰상담될 스님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됐다.

84000 불전번역은 100년을 계획하고 진행중인 장기 프로젝트다. 84000측은 "티베트 대장경의 5%미만이 지금까지 현대어로 번역되었으며, 고전 티베트어에 대한 지식과 자격을 갖춘 학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귀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문화유산으로만 지킬 위기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부터 번역작업에 돌입한 불전번역은 현재 깐규르의 25%를 번역했으며 번역을 위해 옥스퍼드, 비엔나,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같은 해외 명문대들을 비롯해 인도와 네팔에서 전통강원 교육을 받은 스님들의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84000은 "깐규르가 광범위한 불교적 견해, 믿음, 수행의 원료라면, 땐규르는 이를 구성하고 체계화하는 탐구의 결과다. 이러한 주석서들은 어쨌든 그 근원이 되는 경전 번역작업의 일부이므로 장차 독자가 불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번역작업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논장의 번역작업은 독자의 이해에 가장 큰 도움이 될 단어별 주석에 집중하여 진행중이다. 프로젝트 번역팀은 "세 개의 광대한 〈반야경〉의 주석서를 내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현재진행 중인 다른 논장의 번역의 대부분은 밀교부에의 주석이며, 또 다른 〈반야경〉들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 논장들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불자 색소폰 거장' 웨인 쇼터 별세

3월 2일, LA서…향년 89세
불교 철학가 · 평화운동가


사진출처=jazzradio.fr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미국의 전설적인 색소폰 연주자 겸 작곡가 웨인 쇼터가 향년 89세 나이로 별세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웨인 쇼터(Wayne Shorter · 사진)는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다.

쇼터의 홍보 담당자 알리세 킹슬리는 이날 "웨인 쇼터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언론에 알렸다. 사망 원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킹슬리는 성명을 통해 "선구자적인 작곡가 겸 색소폰 연주자, 시각 예술가, 독실한 불교 신자, 헌신적인 남편 · 아버지 · 할아버지였던 쇼터는 삶의 특별한 일부로서 또 다른 여행을 시작했다"며 "창조적인 가능성을 찾아 떠났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탐구한 '온화한 영혼' 이었다"라고 추모했다.

1933년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출생한 웨인 쇼터는 고교 시절부터 색소폰과 클라리넷 등을 시작했다. 그러다 1959년 정식 데뷔한 후 1950년대 하드 밥을 대표하는 밴드 '아트 블레이키의 재즈 메신저' (Art Blakey' s Jazz Messengers)와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 의 창립 멤버로 활약했다.

쇼터는 역대 최대 판매된 재즈 음반 중 하나인 '헤비 웨더' 를 비롯해 25장 이상의 앨범을 발매했다. 특히 2015년 '제57회 그래미어워즈' 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총 12개의 그래미상을 받았다.

특히 쇼터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유명했다. 불교 철학자이자 국제 평화운동가로서 활동하며 세계 54개국을 방문했고, 미국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허비 행콕과 이케다 다이사쿠 SGI 회장과 재즈 · 불교를 주제로 나눈 대담집 '재즈와 불교, 그리고 환희 찬 인생' 을 펴내기도 했다. 해당 저서는 국내에도 번역 출간됐다. AP 통신 등 외신은 "쇼터가 남긴 노래들은 현대 재즈의 표준이 됐다"며 "그는 서정적이면서도 복잡한 선율의 재즈 작곡과 선구적인 색소폰 연주로 미국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부탄, 현대 교육과정 접목 강원서 새 강사 탄생

강사스님 30명 2년 학위과정 마쳐
논문집 정식 출간…무문관도 입재


현대식 교육과정을 통해 강사 학위를 받은 부탄스님들. 사진출처=BBS 뉴스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에서 현대식 교육과정을 통해 30명의 새로운 강사스님들이 탄생했다. 3월 4일, 부탄의 'BBS 뉴스', '부탄 라이브' 등의 현지 언론들은 부탄 불교계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3월 3일 팀푸의 따시최종 사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30명의 스님들이 부탄불교의 지도자인 제 켄포 스님으로부터 강사 지위와 학위를 인정받았다. 이 스님들은 지난 2020년 부탄에 최초로 설립된 현대식 강원인 땁고 도르댄 불교대학의 고급 금강승 연구소에서 2년간의 학위과정을 마쳤다. 수여식에서 제 켄포 스님은 "이번에 졸업한 강사스님들의 연구 논문들이 실린 논문집을 정식으로 출판한다"고 밝혔으며 "책의 제목은 〈성취한 금강지(金剛持)의 정수〉로 명명한다"고 전했다.

땁고 도르댄 불교대학장인 툴쿠 땐진 왕뽀 스님은 "금강승 불교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 한 가지 수행법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면 다양한 수행법을 통하여 자신의 근기에 맞는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금강승 수행은 수행자로 하여금 일생 동안 깨달음을 얻게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금강승 전통에서 수행과 함께 하는 의례의식을 봉행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기 위해 올바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급 금강승 연구소가 설립취지와 강사들을 육성하는 목적을 설명했다.

강사로 탄생한 졸업생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푸르빠 남걜 스님와 예쎄 도르제 스님은 아직 30대 초반의 나이로 두 스님 모두 "성공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불보살의 가피로 생각한다. 불법의 전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아 전했다.

남걜스님은 "왕실인사와 교계 큰스님들이 모두 자리하신 가운데 제 켄포 스님께 인증서를 받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한다. 처음 과정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삼보의 가피와 교사진과 학생들의 합심 덕분에 모든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를 선례로 뒤따르는 후배스님들도 어려운 없이 학업을 이루길 바란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도르제 스님은 "금강승의 가르침을 많이 전수받고서 이 중요한 수행법들을 배운 후에 가능한 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전파하고 싶다"면서 "다른 곳을 여행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연구에 대해 공유할 수 있다면, 금강승 전통의 중요성을 널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를 졸업한 강사스님들은 대부분 3년 동안 무문관 수행에 입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학식과 수행을 함께 겸비하기 위한 일환이며, 일부 스님들은 다른 불교교육기관과 졸업한 불교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서 대형 화재

1만2천여 이재민 발생…"화재 원인 파악 중"


사진출처=AP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지역의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3월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11호 난민 캠프에서 큰불이 났다.

화재 직후 9개 소방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나 불길은 약 2시간 가량 지속됐다. 결국 11호 난민 캠프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 10번과 12번 캠프로까지 번졌다. 약 2000채의 집들이 소실돼 1만 2000명에 달하는 이들이 거처를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슬람 사원 35곳과 교육 시설 21곳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찰은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집들이 대나무와 방수포 등 임시 거처 형태로 만들어져 화재 피해가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유관 기관들이 화재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는 미얀마 라카인주에 모여 살았으나 미얀마 극우 불교단체의 탄압으로 대거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상태다.

방글라데시 남부 미얀마 접경 지역인 콕스 바자르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로힝야족 난민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9월에는 미얀마에서 발사된 박격포탄이 이곳에 떨어져 로힝야족 10대 소년이 사망하는 등 미얀마 군부와 극우 불교단체의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방글라데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로힝야 난민 거주 지역에서 모두 22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60건은 방화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